금요 양성 - 2024년 11월 29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이번 주와 다음 두주에 걸친 3부로 된 금요 양성은 일년 중 어느때라도 형제회 양성의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림 - 기다림과 회개 (1부)

대림시기동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걸으셨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체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3주동안 우리는 프란시스 성인이 다미아노 십자가앞에서 무릎 꿇고 드렸던 기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각 부분은 기다림과 회개의 기간에 중요합니다.

Most High, 지극히 높으시고
glorious God,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enlighten the darkness of my heart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 주소서.
and give me 저에게
true faith, 올바른 신앙과
certain hope, 확고한 희망과
and perfect charity,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sense and knowledge, 지각과 인식을주소서,
Lord, 주님,
that I may carry out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Your holy and true command. 실행할 수 있도록.

https://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prayer-before-the-crucifix/58-fa-ed-1-page-40

1 부: 매일의 회개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요,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 주소서."

숙고해 보시오:

+ 우리 회칙 7조 –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11]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12] 이 자기 쇄신 과정에서 화해성사는 성부의 자비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샘이다.[13]"*

+ 권고 22: 잘못을 고침
[1]다른 사람이 해 주는 훈계와 문책과 꾸지람을 마치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인내로이 견디어 내는 종은

복됩니다.
[2]꾸지람을 듣고는 그 꾸지람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겸허히 고백하고, 기꺼이 보속하는 종은 복됩니다.
[3]자신을 변명하는데 빠르지 않고, 자기 탓이 아닌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움과 꾸지람을 겸손히 참아 받는 종은 복됩니다.

https://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saint/writings-of-francis/the-undated-writings/the-admonitions/151-fa-ed-1-page-135

+ 대림시기 동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봅시다. 지금이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하는 소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지 살펴 볼 좋은 때입니다.

토의나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

+ 매일의 회개에 대한 부르심에 어떻게 맞갖게 살아 가고 있습니까? 대림 시기동안, 영적인 삶에서 어떤 점 – 작은 것들이라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까?
+ 성프란시스의 회개의 핵심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잘 따르고 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감을 주신 Anne Mulqueen, OFS 에게 감사드립니다.